

Style

조선일보

MAY 2020
vol.205



DIOR
PRESTIGE

NEW

LA LOTION ESSENCE DE ROSE

라 로션 에센스 드 로즈



TIFFANY & Co.



Introducing Tiffany

T

COLLECTION
Fifty Fathoms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RAISE AWARENESS,
TRANSMIT OUR PASSION,
HELP PROTECT THE OCEAN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블랑팡 직영부티크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02-3213-2261) ·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 (02-310-5295)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씨클 (051-745-1350)
롯데면세점 본점 11층 (02-759-6751) ·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3층 (02-6288-0851)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02-6370-4083) · 현대면세점 8층 (02-2142-6126)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rivole collection
Clip pendant and ring,
yellow gold and diamonds.



14



14

16



Style 조선일보
 MAY 2020
 V.205

로즈 드 그랑빌과 로즈버드의 고귀한 새치 효과로 장미의 무한한 생명력을 피부 깊숙이 전하는 두 가지 제품. 먼저 다들 프레스티지 라 로즈 에센스 드 로즈는 꽃병오리에 담긴 풍부한 활성 성분을 피부 층층이 전달해 본연의 재생 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150ml 14만5천원대. 20여 가지의 미세 영양 성분을 담은 다들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펠 드 로즈는 세럼의 신듯함과 오일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장미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로 피부를 활력 있게 가꿔주는 역할을 한다. 30ml 29만5천원대. 문의 080-342-9500



12

12 **SELECTION** One Mile Life! 그 어느 때보다 실용적인 패션이 필요한 지금 유용한 아이템들.

14 **ART EVOLVES IN VIRTUAL WORLDS** 지구촌을 날벼락같이 내리친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많은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동과 이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지만 '원거리가 불가능한' 일상이 됐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꿈꾸기보다는 '비대면(untact)' 활동이 당연시되며, 세계화는카녕 지역화가 넥스트 노멀로 꼽히고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국수주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 예술계에서는 스타 뮤지션들의 온라인 릴레이 콘서트처럼 위기 속 '하나' 됨을 외치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모든 장벽을 부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특히 시대를 비추는 가운뎃길을 지켜보는 현대미술계의 최근 행보는 자못 흥미롭다. 초기에는 전시 공간을 달아나 했던 탓에 오프라인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과 도구를 동원해 반전을 꾀하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띈다. 기획자나 아티스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영감이, 문화 소비자에게는 참신한 위로와 즐길 거리로 되는 작품의 풍경을 들여다본다.

16 **WHERE IS YOUR LOVE?**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디쯤 있나요? 여유 없는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내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보세요. 연인, 가족, 친구 등 자마다의 이름으로 곁에 머무르는 소중한 이에게 애정과 감사, 존경을 표현하기 좋은 5월입니다. 진심을 담은 손 편지라도 충분하지만,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까지 함께한다면 더욱 특별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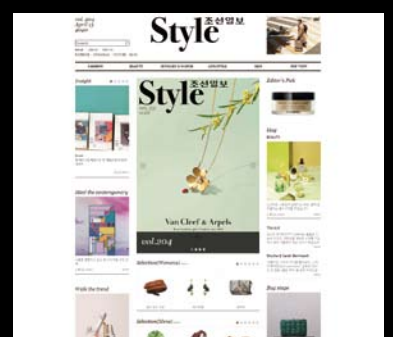
26 **THE PERFECT ONE** 국내 생활 가전 시장을 선도해온 LG전자에서 혁신적 기술력을 담은 일체형 원바디 세탁 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했다. 하나의 제품으로 세탁과 건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새로운 의류 관리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28 **SUPER WHITENING** 고질적인 색소침착부터 잔반적으로 칙칙한 피부 톤, 그리고 여드름 자국까지. 화이트닝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자마다 다를 것이다. 미백 관리는 수분과 영양만 충전하면 해결되는 보습 케어와 달리 보다 세심한 관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을 가지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신제품을 가장 먼저 접하는 <스타일 조 선일보>의 뷰티 에디터가 인기 높은 이틀 가지 제품을 꼼꼼하게 테스트했다. 촉촉함, 탄력 증진 효과, 민감성, 영양 공급, 마무리감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보기 쉽게 별점도 매겼다. 전문가의 오 해와 진실 Q&A는 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30 **EDITOR'S PICK** 건조한 대기와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가꿔줄 이달의 뷰티 컬렉션.

Style 조선일보

Issue.205 May 2020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Cape Cod
Time beyond time.



오월愛 향기

(우부터 시계 방향) **로라보 베르가모트 22** 베르가모트의 싱콤함과 자몽의 생생한 향, 앵퍼와 마스크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싱콤한 향. 50ml 24만원. **바이레드 집시 워터** 스파이시한 페퍼 향과 레몬의 싱콤한 향으로 시작해 솔잎과 바닐라의 열은 우디 향이 이어져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다. 100ml 29만8천원. **레플리카 스프링** 향기로운 인텔리감을 중심으로 계피, 후추, 카다멈이 활력을 더하고, 블랙베리와 흑송나무 향이 도화제 따듯하게 마무리된다. 100ml 27만원. **담타르 오드 만데 오드 파퓰** 카스캐이드 민트와 재분, 파슬리가 어우러진 신뜻하면서도 생생한 우디 향으로, 은은하게 느껴지는 로즈 요사이드 향이 향긋함을 더한다. 75ml 21만원. **메종 마르자렐라 옛 더 바니스** 마드리드의 오래된 이빨소에서 느낀 빈티지하고 낭상적인 향을 표현했다. 바질 어코드로 시작해 향긋한 라벤더와 통카빈, 블랙베리로 이어진다. 100ml 15만원.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A MASTER PIECE

로맨틱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다이얼이 여성을 사로잡는다. 엑스트라 화이트, 무지개, 진주빛 등 47가지 재개를 따줄 맞춤듯 연결해 세공한 다이얼 위 빔하늘 모티브의 문페이즈 인디케이터와 그 주변을 수놓은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지며 화려한 광채를 발하는 불량망의 우먼 레트로그라이드 캘린더 워치.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2660RL을 탑재했으며, 5개의 일로 이루어진 꽃 모양 로터를 장착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4천8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MODERN CLASSIC

5년 전 봄 첫선을 보이며 지금까지도 칸템퍼러리 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코코 크러쉬 링이 올해는 조금 더 얇은 버전을 선보였다.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끼거나, 한 손가락에 레이아웃해두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 살짝 빈티지한 매력은 내뿜는 쿨링 모티브 18K 베이지 골드 총 1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PERFECT SKIN

다올 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라인인, 다올 포에버에서 소개하는 5월 메이크업 필수 아이템 2가지. 먼저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쉬운 풀 커버 매트 컨실러, NEW 다올 포에버 스킨 코렉트에 주목할 것. 무려 10가지 세이드로 출시해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피부를 연출하기에 좋다. 11ml 5만5천원대. 또한 함께 출시하는 2가지 제형의 파운데이션 다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24H 웨어 스킨-케어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피니쉬와 루미나스 매트 피니쉬는 그 24시간 지속되는 업그레이드된 커버력은 물론, 한층 강화된 스킨케어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30ml 7만7천원. 문의 080-342-9500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THE VERY VEST

오라기락한 기운에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인 이들을 위해 피바이나 필리피의 2020 S/S 컬렉션 키아이템을 제안한다. 클래식한 트렌치코트 디자인을 차용한 베이지 컬러의 더블브레스트 베스트는 어깨와 허리 라인에 힘을 준 실루엣, 큼직한 칼라와 아웃 포켓 디테일이 멋스럽다. 워터 리펠런트 가공한 코트 소재로 생활 오염 방지 및 방수 효과가 뛰어난 부담 없이 입기에 좋고, 실기 한 스커트부터 편안한 티셔츠와 데님 팬츠까지, 다양한 아이템에 조화롭게 어울려 환절기 옷장 속 가장 활용도 높은 아우터가 될 듯. 2백38만원. 문의 02-6960-0831

DEAR MY QUEEN

이탈리아에는 그 누구보다 스타일이 좋고 매력적인 마르케리타 여왕이 있었다. 워낙 다방면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스타일 아이콘이었고,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그런 그녀를 주얼리로 표현한 다이아의 마르케리타 컬렉션은 불면 날아갈 듯한 가벼움과 정교한 세팅을 자랑한다. 플라워 모티브를 장식한 다이아몬드와 최상급 유색 보석은 빛의 각도에 따라 밝게 빛나는데, 이는 이탈리아 여왕의 풍요로움과 우아함을 표현한 것. 화이트와 브라운 다이아몬드에 세팅한 자수정, 시트린 등 유색 보석이 화사한 환관을 연상시키는 발랄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의 마르케리타 링 5백만원대. 문의 02-515-1924



NEON EFFECT

2020 S/S 시즌 다수의 빅 패션 브랜드에서 재현하는 공룡된 컬러 팔레트는 내인 화이트, 블랙 등 무채색 계열은 물론 파스텔컬러와도 관련한 조합을 이룬다. **델보 콜 박스 미니 백** 화이트 컬러 레더 라이닝과 D자 모양 클램프로 모던함을 더한 행방 라임색 가방. 부드러운 수송이 가죽을 사용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9-5916 **샤넬 카프 스킨 스니커즈** 클래식한 화이트 스니커즈에 내온 핑크 컬러 레이스업, 오렌지 컬러 인솔, 내온 그린 컬러 레퍼팅 로고와 레진 솔을 더해 재미를 찾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승혁** 에디터 **이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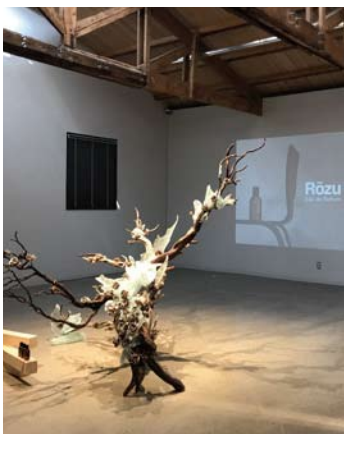


로맨틱 파우더

틀레첸가비나 뷰티가 한국 여성을 위해 특별 선보이는 한정 패키지 제품으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패턴인 정미와 레오포드를 믹스해 과감하고 센수얼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어느 피부 톤에나 잘 어울리는 파지 로즈빛 하이라이팅 파우더로 살기만 미세 피부도 포물러가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와 은은한 광채를 부여한다. DG 로즈 코라아 하이라이더 12g 6만7천원대. 문의 080-564-7700

STRONG & BEAUTIFUL

화이트 골드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스틸 소재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실용성, 심미성, 합리성을 두루 갖춘 시계. (왼쪽부터 시계 방향) **볼가리 세르펜티 세루벤티 세루벤티 워치** 뱀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스틸 케이스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크라운에 카보숑 컷 핑크 루비로 포인트를 세팅했다. 8만만원대. 문의 02-2056-0170 **타미니 T 스마일 리미티드 에디션 32MM 리운드 워치** 티파니 블루 컬러 다이얼을 감싼 베젤과 케이스 오른쪽의 T 모티프는 리운드 브랜들라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47-9488 **샤넬 워치 보이 프렌드 트루트 워치 스톤 시어즈 627** 워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베젤과 블랙 가죽에 다이얼의 조화가 시크하다. 하우스의 정체성을 강조한 트루트 패턴 브레이슬릿이 멋스럽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승혁** 에디터 **이혜미**



전설의 디자이너 감성을 담은 이솜 '로즈 오드 파퓰' 프랑스가 낳은 전설의 가구 디자이너와 요즘 각광받는 조형사의 만남으로 빛이 나는 향의 마향. 20세기를 수놓은 모더니즘 작가이자 시대의 진취적인 아이콘으로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솜의 향수 로즈 오드 파퓰을 예술적 감성이 깃든 전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프랑스 스타 조형사 바베 피몽은 페리앙의 이름을 따지는 **와비라 가든 로즈**, 그녀가 일하던 작업장, 즐겨 찾던 **알프스산맥** 등을 아우르며 그 정수를 담은 매혹적인 향을 탄생시켰다. "그녀 시트라스를 더한 **플로럴** 향의 지배적인 캐릭터는 후 내음의 우디한 **베베 베르**로 완화되는데, 이는 그녀가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남성 코롱을 연상시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즈 오드 파퓰의 중성적이고 스모키한 매력에 대한 바베 피몽의 설명이다. 페리앙의 생전 모습과 어울려, 그녀가 디자인한 '517 올브라 도쿄 체어' 등이 등장하는 영상과 함께 설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는 이솜의 서울 가로수길 사옥에서 매달에서 진행 중이다.

WHITE CAVIAR
EYE EXTRAORDINAIRE

화이트 캐비아 아이 엑스트라오디네어

새로운 빛의 과학으로
탄력 있고 광채 있는 눈가를 완성하다



빛의 형태

라프레리는 건축의 원리에서 영감을 얻어 대비, 그림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눈가를 연구했습니다. 강력한 일루미네이팅 성분인 루미도스와 골든 캐비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한 아이 크림은 눈가의 피부 톤 문제를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어 눈가에 탁월한 광채를 선사합니다.

www.la-prairie.co.kr

Selection

One Mile Life! 그 어느 때보다 실용적인 패션이 필요한 지금 유용한 아이템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평온 끝도 자더 부드러운 벨벳의 네르비스 22만원 골든듀.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아이아몬드를 두수로 인타캐이션을 넣은 7각 미팅 프렌드.

에티카 아이리 아이시어트 조조피

라빈 스치 면과 코르크에 맨스 7각 미팅 프렌드아이니.

매달과 아세테이트로 완성한 아이비베터 선글라스 43만원 토즈.

아름 반대로 출시하는 스위스 아이-아프 클래식 SD 포켓 나이프의 리미티드 에디션 스포츠 오브 더 월드 #스케이팅보딩 3인7천원 빅토리투스.

클래식 루터늄 플레이트 테니스 디렉트 브레이 슬릿 27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라이트 그레이 코튼 시호스 인타문사아 티셔츠 1백13만원 톱 브라운.

스웨이드 카프 스킨과 패브릭 소재가 어우러진 스니커즈 7각 미팅 사벨.

카를 링으로도 추천하는 로즈 골드 반지 중앙에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링 96만원 엠디루사.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리버너 플러스 스니커즈 1백12만원 발렌티노 가브리니.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몽블랑 무선 스마트 헤드폰 MB01 80만원 몽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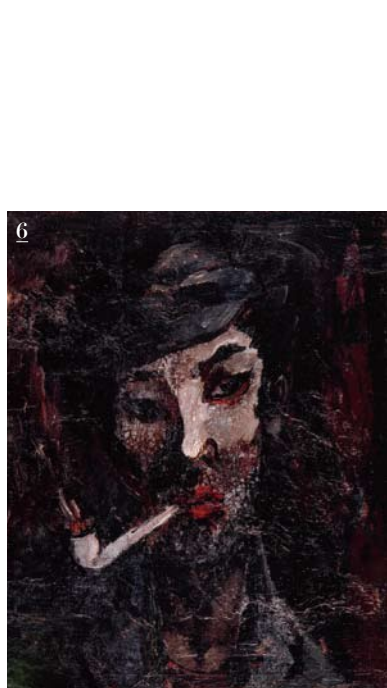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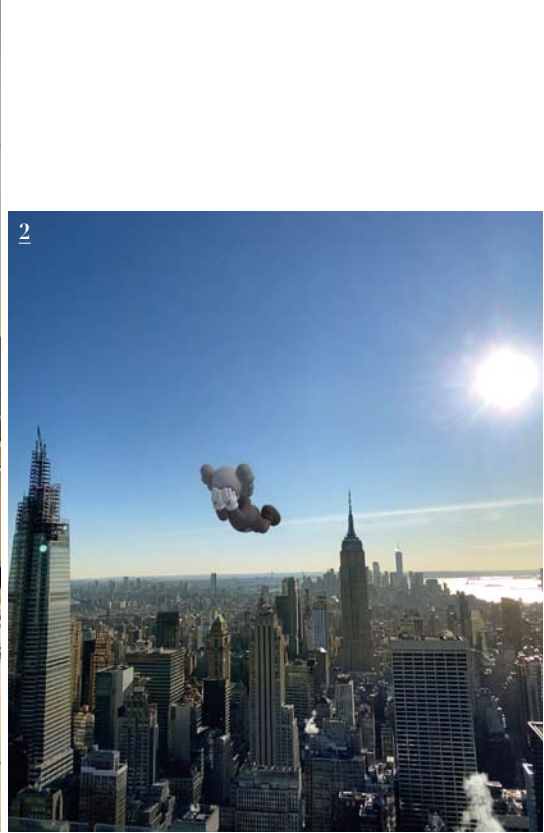
강한 내구성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유명한 에르메스 2백18만원 에르메스.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총 54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12시 방향에는 날짜창, 6시 방향에는 분침, 9시 방향에는 24시간 인디케이터를 장착한 마스터 칼렉션 40mm 3백99만원 론진.

화가 폴로인 스티브 라이머의 작품 조각 스물 워터나 백 2백만원 만시타.

하리 밴딩 디테일과 편안한 버클 잠금장치로 실용성을 강조한 올-비스코스 혼방 팬츠 1백18만원 피비어나 필리피.

톼 브라운 070-7130-9171 골든듀 1588-6576 프렌드 02-514-3721 로로피아나 02-546-0615 사벨 080-200-2700 토즈 02-3438-6008 빅토리투스 02-546-8864(360) 론진 02-310-1597 엠디루사 02-3438-6057 발렌티노 가브리니 02-2051-4652 피비어나 필리피 02-6960-0831 막시마라 02-511-3935 에르메스 02-542-6622 몽블랑 1670-4810 스와로브스키 02-6402-1725



art evolves in virtual wor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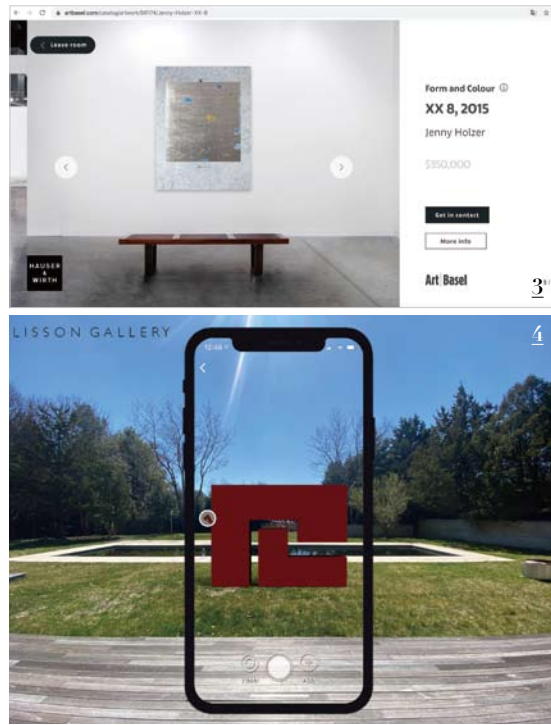
지구촌을 날벼락같이 내리친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에 많은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동과 이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지만 '원거리'가 불가피한 일상이 됐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꿈꾸기보다는 '비대면(tact)' 활동이 당연시되며, 세계화는 커녕 지역화가 넥스트 노멀로 꼽히고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되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국수주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 예술계에서는 스타 뮤지션들의 온라인 릴레이 콘서트처럼 위기 속 하나 뒀을 외치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모든 장벽을 부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특히 시대를 비추는 거울임을 자처하는 현대미술계의 최근 행보는 자못 흥미롭다. 초기에는 전시 공간을 닫아야 했던 탓에 움츠러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과 도구를 동원해 반전을 꾀하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띈다. 기획자나 아티스트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영감이, 문화 소비자에게는 참신한 위로와 즐길 거리가 되는 작품의 풍경을 들여다본다.

어떤 도시들은 자주 방문하고, 심지어 빈번히 같은 공간을 찾기도 늘 시간이 부족한 듯한 데다 지겹지가 않다. 아마도 문화 예술 분야의 전시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이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물론 이는 수시로 바뀌는 콘텐츠와 더불어 공간 자체가 매력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과 바늘, 음식과 그릇의 관계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를 둘러싼 공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자신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런데 고약한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연결이 무섭도록 차단되고 격리가 흔해지자 '공간'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다가온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 보호해주는 공간, 억압하고 옥죄는 공간, 콘텐츠를 담은 공간... 관점에 따라 사뭇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철학자 그라프 푸르 크하임은 이처럼 이중성을 지닌 공간을 가리켜 '자아실현의 구체적인 매개체, 발전 가능성 같은 표현도 썼지만, 동시에 '저항이자 한계'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 디지털 세상은 어떻게?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없는 것이 한계지만, 가상 세계는 무한히 공간을 만들고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자원의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면 활동이 줄어든 탓에 문화 예술 콘텐츠에 더 목마른 요즘의 일상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끌어내기에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처음에 분위기가 바짝 얼어붙었던 미술계의 대처를 보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진부하기는 해도 현 상황에 잘 어울린다. 미술관, 갤러리, 경매 회사 등 대부분 근사한 공간을 낀 체 업을 이끄는 주체들은 처음에는 한탄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면서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슬기로운 해소책 짜내기에 바쁘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나 e도록을 올려놓는 건 기본이고, 미디어 아트가 아닌 회화나 조각 전시의 경우에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편집 등의 도구를 활용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내

놓고 있다. 그중에는 꽤나 영리하다 싶은 비즈니스 모델도 눈에 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유통업자든 콘텐츠를 만드는 아티스트든 문화 소비자든 눈여겨볼 구석이 많다.

작가 스튜디오 방문도 전시 개막도 온라인으로...

지난달 초 영국의 명망 있는 현대미술가 라이언 갠더(Ryan Gander)의 스튜디오를 '방문'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그가 소속된 리슨 갤러리(Lisson Gallery)의 주최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잉글랜드 서쪽에 있는 그의 넓은 작업장을 구경하고 평론가의 설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더라도 쉽지 않은 해외 스튜디오 방문인지라 흔쾌히 '접속했다. 허반신이 불편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면서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소개했고,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만든 쥐, 가짜 눈 더



미 같은 신작도 보여줬는데, 기대 이상으로 몰입감이 있었다. 화면에 뜨는 '아이디' 말고는 굳이 나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이 철저한 관찰자처럼 조용히 참여할 수 있고, 원한다면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관중과의 채팅도 시도 가능한 일종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 산만해지는 순간에는 태놓고 만졌도 할 수 있는, 장점이 단점인지 모를 '자유도' 있지 않은가. 물론 방문자 입장에서는 목소리 방향에 얘기를 나누는 편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가는 여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고, 작가나 갤러리 입장에서 보면 수백 명의 다국적 '팬'을 한꺼번에 거뜬히 수용할 수 있으니 효율성 면에서 탁월하다.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이들이 많을 법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국립현대미술관(MMCA)에서는 <수평의 축>이라는 국내·외 작가 17명의 작품 70여 점을 선보이는 동시에 미술 기획진을 인스타그램 생중계로 먼저 공개했다. 자연을 동시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기획한 양옥금 학예연구사가 등장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는데, 3천여 명이 접속해 활기를 자아냈다. 앞서 지난 3월 말 MMCA 덕수궁관에서는 개관 이래 처음으로 <미술관에 쓰는 한국 근현대 서예전>의 온라인 개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전시 투어를 녹화 중계로 진행해 1만4천1백18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누적 영상 조회 수 5만7천 건 이상(4월 22일 오전 기준)을 기록했는데, 영국 시사 문화지 <노크>은 '대부분의 문화 기관이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한국의 MMCA는 유익한 사례를 제공했다'는 요지의 호평을 하기도 했다. MMCA는 지난해 학예연구사가 진행하는 영상 투어를 유튜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물론 재난을 염두에 둔 행보는 아니었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이 같은 노력이 더 빛을 발하는 모양새다. MMCA 관계자는 "유튜브 구독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5천 명 정도 늘어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4개월여 만에 전년 대비 거의 2배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1 미국의 유명 작가 KAWS의 AR 작품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버전 중 글로벌 도시를 배경으로 한 전시 작품. 'COMPANION (EXPANDED)' in Seoul(2020), Augmented Reality. 배경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 KAWS, 'COMPANION (EXPANDED)'(2020), Augmented Reality. 1, 2 Courtesy KAWS and Acute Art. 3 지난 3월 아티스트 최태이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거래된 제니 홀더의 작품 'XX 8'(2015)의 스크린샷. Courtesy Hauser & Wirth and Art Basel 4 화상 미팅 프로그램 '줌'으로 작가 스튜디오 방문을 진행하고 대중을 위해 다양한 작가들의 영상 작품을 연속적으로 선보이는 등 디지털 마케팅에 적극적인 리슨(Lisson) 갤러리의 AR 7월간제 오그멘트(Augment)와 손잡고 AR 플랫폼을 발표했다. Courtesy Lisson Gallery 5 지난달 말 열린 서울옥션의 부산 경매를 위한 출품작을 미리 볼 수 있는 VR 전시 '징 이 미치, 장외진, 이우환 등 한국 근현대 작가들'의 온라인 뷰어 화면. 6 한국현대미술관은 윤범모 관장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대표 소장품 12점을 10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미술관 소장품 강좌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5월 20일 중계될 예정인 구본웅의 친구의 초상(1935). 7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인스타그램 생중계로 온라인 생중계를 한 기획전 <수평의 축>에서 선보인 에이 마리아 이솔라리의 '수평-버사우오(2011)' 설치전경. 6, 7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8 세계 최대 경매업체 크리스티는 4, 5월에 걸쳐 글로벌 온라인 단독 경매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곤경에 처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앤디 워홀 사간예술 재단의 함께하는 경매도 있다. 사진은 앤디 워홀의 유니크 콜라주인 '프린트' 'Andy Warhol and Henry Hechtzler'(1979). 크리스티 코리아 제공

새로운 시대의 한 챗봇이 열리고 있다

사실 미술계를 위시한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 '디지털 패러다임'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기술, 도구, 서비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2011년에 시작된 구글 아트 앤드 컬처(Google Arts & Culture) 서비스로 휴대폰만 있으면 세계 우수 문화 기관의 스트리트 뷰와 콘텐츠를 가장 산책하듯 살펴볼 수 있다.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Met 360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주요 내부 공간을 360도로 방향을 바꿔가며 동영상으로 살펴보는 서비스를 맹성이 자자하다. 아트 페어계의 '브랜드인' 아트 바젤 홍콩은 올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자 '온라인 판매로 전환해 꽤 쓸쓸한 결과를 얻어냈다. 또 이제는 대형 미술관뿐 아니라 갤러리나 개별 아티스트의 영향이 높은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런던, 뉴욕, 홍콩 등지에 전시 공간을 둔 세계적인 갤러리 하우저 앤드 위스(Hauser & Wirth)는 늘 세련되면서도 트렌디한 컬렉터나 젊은 대중과도 호호하는 '힙한' 콘텐츠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디스패치(Dispatches)'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첫 단추를 마틴 크리드(Martin Creed)의 생동감 넘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퍼포먼스로 꿰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트 페어나 전시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게 뻔한 쟁쟁한 작가들이 자신의 자택이나 작업실에서 찍은 영상 편지와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하우저 앤드 위스는 HWVR이라는 VR 모델링 툴을 내놓는 등 디지털 기술 개발에도 열심인데, 내년엔 스페인 메노르카에 문을 열 아트랩(ArtLab)을 미리 볼 수 있는 VR 전시도 최근 시작했다. '거미 작가'로도 잘 알려진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담(Maman)'을 영상미 넘치는 VR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더 흥미로운 현상은 'AR 열풍'이다. VR이 물리적으로 당장 가볼 수 없는 공간을 체험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디지털 기기를 통해 '주입되는' 콘텐츠만 접할 뿐 '나의 주변 세상'을 볼 수 없는 데 반해, AR은 유저의 일상 풍경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고, 스토리텔링에도 유리하다. BTS 멤버 RM·제이홉과의 만남으로 한국의 젊은 층에도 잘 알려진 미국 작가 카우스(KAWS)는 얼마 전 아티스

트와의 기술 협업으로 유명한 영국 기업 아큐트 아트(Acute Art)와 손잡고 '홀리데이 익스팬디드(Holiday Expanded)'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AR 아트의 모범이 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냐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아큐트 아트 앱'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배경에 눈과 손에 X자 표시를 한 KAWS의 대표 캐릭터 '컴패니언(COMPANION)'을 등장



9, 10 이탈리아의 현대미술 아트 페어 아티스마(Artissima)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스타그램에서 2017년 행사에 참여한 한 명의 아티스트가 아티스마 현대미술의 오픈과 내년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지칭하는 '자네로자지(Genealogy)'와 아트 페어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되돌아보는 온라인 프로젝트 'Artissima Rewind' 등이 있다. 10번 작품은 Alek O. Tangram(Lumping Dog, 2013). Courtesy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Torino 11 개인 5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개최하는 갤러리현대도 전시 모습. 한국 미술계 최고 경매를 기획한 김환기의 우주 05-IV-71 #200도 볼 수 있으며, 한정 관람(5월 12일 전에는 온라인 프리뷰)이 진행된다. 갤러리현대 제공 12 세계적인 갤러리 하우저 앤드 위스는 내년에 스페인 메노르카에 문을 열 아트랩(ArtLab)을 미리 볼 수 있는 VR 전시도 최근 시작했다. 갤러리의 VR 모델링 툴로 구현한 아트랩 공간 이미지. 작품은 '거미 작가'로도 잘 알려진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담'(Maman)(1999). Louise Bourgeois©The Easton Foundation/VAGA at ARS, NY. Courtesy The Easton Foundation and Hauser & Wirth



Where is Your Love?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디쯤 있나요? 여유 없는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내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보세요. 연인, 가족, 친구 등 저마다의 이름으로 곁에 머무르는 소중한 이에게 애정과 감사, 존경을 표현하기 좋은 5월입니다. 진심을 담은 손 편지라도 충분하지만,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까지 함께한다면 더욱 특별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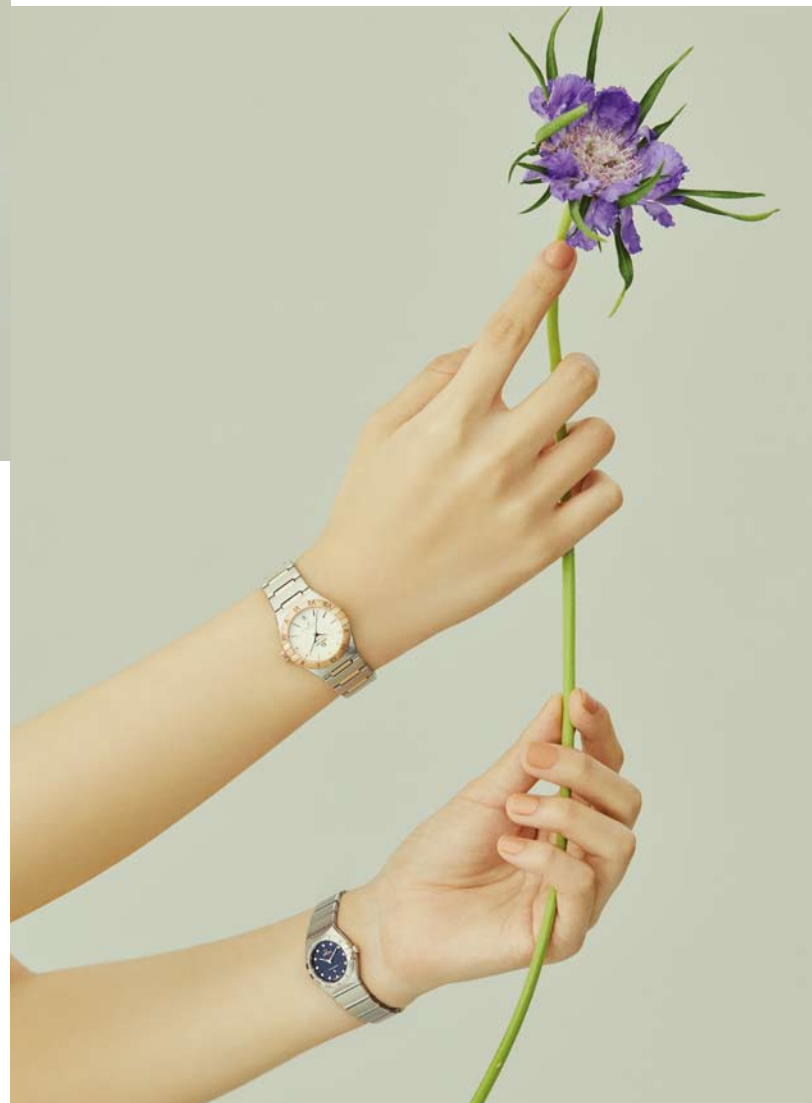
photographed by **shin sun hye**



남성을 위한 칸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옐로 골드 케이스와 올리브 컬러 레더 스트랩의 감각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모델로 탁월한 항자성을 자랑하는 자체 제작 칼리버 오메가 8801을 장착했다. 2천만원대, 여성을 위한 칸스텔레이션 쿼츠 25MM, 고유의 컬러 장식 베젤과 아더오브필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했다. 2천만원대, 모두 **오메가**, 여성이 착용한 슬리브리스 원피스, 남성이 착용한 플호버,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로모피아나**.



남성 손목에 착용한 시계는 칸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39MM, 브러싱 처리한 독특한 질감의 루테튬 그레이 다이얼과 매트한 스틸 케이스, 다크 블루 스트랩을 매치해 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7백만원대, 여성 손목에 착용한 드 빌 트레저 쿼츠 36MM은 그라데이션 레커 다이얼과 유려한 곡선형 케이스의 조화가 매력적인 모델. 스틸 케이스 측면에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손목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다. 5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위부터) 스틸과 세드나골드를 결합해 완성한 케이스 지름 29mm의 칸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워치, 오픈워크 처리한 나뭇잎 모양 핸즈와 맨해튼 프라임 타워를 형상화한 인덱스가 돋보인다. 9백만원대,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장착해 활동성과 실용성을 높인 칸스텔레이션 쿼츠 25MM, 블루 어벤추린 글라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더해 밤하늘을 바라보는 기분으로 시간을 읽을 수 있다. 5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왼쪽부터) 다이아몬드와 블랙 사파이어로 옐로 골드 링에 실포시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박새의 모습을 구현한 메이시엔타임 링 2천만원대 **부세몬**.

별에서 영감을 얻은 티파니 빅토리아 칼렉션 이어링, 로즈 골드 보드에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마치 작고 수수한 꽃잎 같다. 가격 미정 **티파니**.

지름 36mm 케이스에 총 3,52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손목을 화려하게 밝히는 데줄링 링대부 나잇 & 데이 워치 가격 미정 **에거 로블르르**.





라빈 소재 단상 걸 비대칭 미디 드레스 4백78만원, 비대칭 이어링 가격 미정, 볼드한 와이어 브라스 브레이슬릿 85만원,
 표임 디테일로 변주를 준 튜블러 브레이슬릿 1백26만원, 송아지가죽 컷트 부츠 1백36만원, 모넬이 인고 연출한 제품은
 모두 남성용으로 화이트 코튼 셔츠 가격 미정, 울 개버딘 소재 하프 킬트 재킷 가격 미정 모두 **일렉신더 백핀**.

〈부부의 세계〉 1회에서 김혜애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착용해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기도 한
 다비 백, 아틀라아 소가죽으로 완성한 견고한
 실루엣과 부드러운 칼라감이 특징이다.
 플랩을 아래로 밀어 록 장식을 여는 형식으로
 메탈 루프 장식과 3겹으로 분리되는 보타리인이
 포인트, 후면에 오픈 포켓 디테일을 가미해
 실용성을 강조했다. 49만8천원 **조이그라이스**.
 알타나 플록 스트라이프 맥시 드레스
 83만5천원 **휴고보스**.



〈부부의 세계〉 7회에서 김혜애가 착용한 라키 백.
 은은한 빛을 발하는 헤더 그레이 가죽과 골드 사틴
 장식이 조화를 이룬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재무능하게 연출 가능하며,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클래식한 실루엣에 벨트 디테일을 가미해 모던한
 매력을 선사한다. 54만8천원 **조이그라이스**.
 니트 플리츠 스카트 16만9천원 **브룩스브라더스**.

(왼쪽 모델)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실루엣의 롱 베스트 6백23만원 **브루넬로 쿠차넬리**. 오른손에 들고 있는 제품은 선명한 발색력과 플레시처럼 강렬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92 아우르 식류 립크. 3g, 4만5천원 **샤넬 뷰티**. (오른쪽 모델) 버건디 니트 드레스 3백88만5천원 **보티가 베네타**. 모델이 들고 있는 제품은 알로에 베라 오일을 함유해 부드럽게 발리며, 8시간의 우수한 지속력을 자랑하는 아디트 스텔라 헤일로 사인 립스틱 #536 럭키스타. 3.2g, 4만5천원대 **디올 뷰티**.



(왼쪽부터) 둥글게 카팅한 브러시로 얼굴 각도에 따라 제품을 고르게 바를 수 있는 루스 피우더 브러시 16만8천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셀룰라 콤플렉스를 함유했으며, 성세하고 고운 입자가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정돈해준다. 파우더를 휴대에 언제나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함께 제공한다. 스킨 케어아 루스 피우더 40g + 10g(트래블 사이즈) 28만2천원. 모두 **리프티피**. 피부에 매끈하고 완벽하게 밀착해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선사하며, 클라겐이 피부를 촉촉하게 메워주어 리프팅된 듯한 이상적인 피부 연출이 가능한 AG 레디언트 글로우 리프팅 쿠션 파운데이션 #351. 15g, 11만원대 **데코르테**.

(왼쪽부터) 부케 한 다발을 담은 듯 직원의 풍부한 향과 싱그러움 살구 향, 그리고 머스크와 앰버 노트로 이루어진 플로럴 향이 어우러지는 홀리 피오니 오드 퍼퓸. 125ml, 28만원대 **다올 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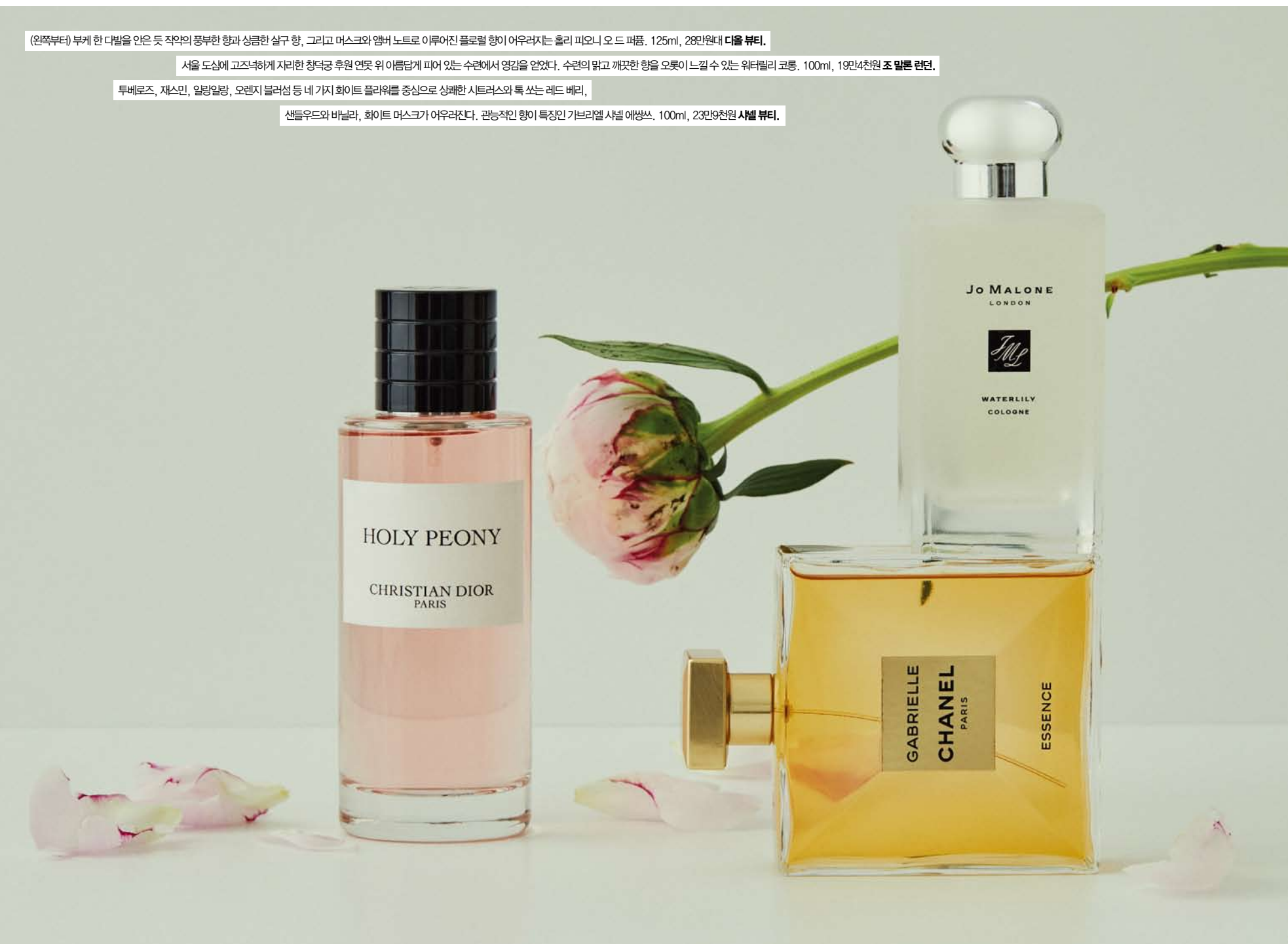
서울 도상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창덕궁 후원 언덕 위 아늑하게 피어 있는 수련에서 영감을 얻었다. 수련의 맑고 깨끗한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워터릴리 코롱. 100ml, 19만4천원 **조 말론 런던**.

투베르즈, 재스민, 일랑일랑, 오렌지 블라썸 등 네 가지 화이트 플라워를 중심으로 상쾌한 시트러스와 톡 쏘는 레드 베리,

샌드우드와 비닐라, 화이트 머스크가 어우러진다. 관능적인 향이 특징인 가브리엘 샤넬 에센스. 100ml, 23만9천원 **샤넬 뷰티**.



(왼쪽 모델) 미세입자 성분과 향산화 기능을 갖춘 비타민 E 아세이트 성분과 피부 보호, 진정 기능에 카멜리아 오일, 아욱 추출물을 더해 스킨케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 균일한 피부 톤과 화사한 피부 연출이 가능한 휘도 블랑 브라이트닝 안티올루션 쿠션 파운데이션 #1 화이트 오일. 10g, 13만5천원 **시슬리**. (오른쪽 모델) 에센스를 65%가량 함유해 피부에 광채를 더해주고 하루 종일 촉촉하고 화사한 피부 연출이 가능하며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뽕 클라리피피 마블 컴팩트 파운데이션 #PO-01. 13g, 5만원대 **랑콤**.





(왼쪽부터) 푸른 아이즈나이트를 세팅해 더욱 풍부한 볼륨감과 개성을 갖춘 클래쉬드 가르피에 상급 이어링 리미티드 에디션 1천5백만원대 **가르피에**, 여성을 위한 기계식 시계인 포르토파노 오토매틱 문페이즈 37, 지름 37mm의 다이얼 12시 방향에 위치한 상징적인 문페이즈 디스플레이,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 유연한 메시 브레이슬릿이 아우러져 기쁨이 느껴진다. 가격 미정 **IWC**, 남성용 클래식 워치를 대표하는 발레레 그랜드 데이트 워치, 다이얼 6시 방향에 위치한 카다란 날저창이 특징으로, 레드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엘라기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2천5백만원대 **볼링방**.



(위부터)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에 자체 제작한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1110P를 적용한 피아제 폴로 그린 다이얼 스틸 워치 리미티드 에디션 가격 미정 **피아제**, 반지 가장자리를 따라 일그러진 기법으로 총총한 문양을 그려 넣은 티파니 더블 말그레인 클래쉬드 링 가격 미정,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확고한 여성을 위해 탄생한 티파니의 새로운 컬렉션, Tiffany T1은 성취를 이룬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도 제격이다. 로즈 골드 밴글 한쪽 면에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Tiffany T1 내로우 하프 다이아몬드 핸드 밴글 가격 미정, 여성 모델이 검자에 착용한 Tiffany T1 내로우 링 가격 미정, 워치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티파니 T 트루 파베 화이트 링 가격 미정, 모두 **티파니**, 스틸과 세드나 골드 소재의 모던한 컨스텔레이션 오메가 코-엑스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9백만원대 **오메가**, 두 줄의 다이아몬드 사이에 스타트를 더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신을 표현한 젠더리스 무드의 비제리온 락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1천5백만원대 **볼거리**.



(왼쪽부터) 사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베이지 골드 케이스에 6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트루드 퍼핀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보이·프렌드 트윈드 워치 미디엄 사이즈 5백40만원대 **사넬 워치**, 상징적인 원형 모티브, 다이아몬드 포인트 장식, 로고 인그레이빙으로 완성한 감각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볼거리 볼거리 링 2백55만원 **볼거리**, 다이아몬드 65개를 산발적으로 세팅한 지름 17x23mm 스틸 케이스에 에토프 컬러 약아귀 스트랩을 장착한 난투켓 주메 드 다이얼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픈워크 처리한 장미 모티브에 6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제 로즈 아주레 화이트 골드 링, 작고 섬세한 로즈 꽃잎 위에 7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제 로즈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피아제**, 두 줄로 길어 짧게 연출한 **새행 보행**, 펜던트 네크리스, 골드 비즈 장식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했다. 1천만원대 **부세온**, 화이트 마더오브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하트 모양 꽃잎 4개로 이뤄진 코스모스 이어링 1천5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위부터) 버클 장식까지 블랙 컬러를 적용해 모던한 분위기를 강조한 숏이저족 탭메트 백 가격 미정 **엘보**, 부드러운 램 스킨과 모던한 실버 메탈 장식이 어우러진 케이스 백 5백32만원 **샤넬**, 울스핏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램 스킨 플랫 슈즈 1백12만원 **구찌**.

(왼쪽부터) 스커터 프레임 아이웨어 63만5천원 **구찌**, 카프 스킨 스웨이드 에스파드리유 85만원 **살버토레 페라기오**, 고유의 'GG' 패턴을 적용한 실크 타이 30만원 **구찌**.



헤어 조미언
메이브업 김부성
모델 김주향, 송현근, 김도현
어시스턴트 조소희
에디터 이혜미, 이유미

IWC 02-3440-5876 **까르띠에** 1566-7277 **반클라프 아펠** 1688-1906 **부세른** 02-6905-3322 **불가리** 02-2056-0170 **블랑팡** 02-3213-2261 **샤넬** · **샤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에르메스** ·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에거 르클트르** 02-3449-5912 **오메가** 02-511-5797 **티파니** 02-547-9488 **피아제** 02-3479-1802 **로로피아나** 02-546-0615 **휴고보스** 02-515-4088 **브룩스브라더스** 02-2052-8822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보테가 베네타** 02-3438-7882 **엘보** 02-3449-5916 **구찌** 02-3452-1921 **살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토즈** 02-3438-6008 **몰로 람프로렌** 02-6004-0220 **조이그리시온** 080-202-2002 **디올 뷰티** 080-342-9500 **샤넬 뷰티** 080-332-2700 **조 말론 런던** 02-3440-2750 **리프레리** 02-6390-1115 **데코르테** 080-568-3111 **사슬리** 080-549-0219 **랑콤** 080-022-3332

(왼쪽 모델부터) 셔츠 스타일 스웨이드 재킷 7백만원대, 화이트 코튼 셔츠 80만원대, 발수성 코튼을 적용해 실용적인 나고아 팬츠 1백만원대, 부드러운 가벼운 숏이저족 샌들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양가죽 셔츠 7백31만5천원, 양가죽 플리츠스카트 8백73만원 모두 **토즈**, 최고급 바케타 가죽으로 완성한 벨트 백 20만원대 **몰로 람프로렌**, 조형적인 굵이 인상적인 숏이저족 웨지 샌들 1백42만원 **알렉산더 맥퀸**.

옐로 코튼 포플린 셔츠 69만원, 트릴 스카트 83만원, 부드러운 가죽 재킷 5백45만원,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완성한 비바 발레리나 플랫 83만원 모두 **살버토레 페라기오**.





LG TROMM 워시타워

the perfect ONE

국내 생활 가전 시장을 선도해온 LG전자에서 혁신적 기술력을 담은 일체형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했다. 하나의 제품으로 세탁과 건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새로운 의류 관리 문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미니멀한 디자인을 입은 일체형 원바디 세탁건조기
 최근 아파트 주방과 발코니가 확장됨에 따라 세탁과 건조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추세를 따라 세척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두기보다 직렬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데 주목한 LG전자가 일체형 디자인의 원바디(one body) 세탁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를 국내 최초 출시했다. 하단의 드럼 세탁기, 상단의 건조기를 완벽하게 결합한 형태의 LG 트롬 워시타워는 기존의 동급 제품을 아래 위로 이어 설치할 때보다 높이가 87mm가량 낮아졌다. 바닥에서 건조기 도어 중심부까지의 높이는 148.3cm 정도, 별도의 받침대를 받고 올라서지 않고도 세탁물을 넣고 빼거나 필터를 관리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의미다. 한편 불필요한 선과 여백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심리스(seamless) 디자인의 제품 정중앙에는 세탁과 건조 과정을 한번에 조작할 수 있도록 통합 설계한 풀 터치 디스플레이, 원바디 렌드리 컨트롤이 위치한다. 세탁기와 건조기에 손을 높이 뻗거나 리모컨을 사용해 별도로 세팅해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간편하고 스마트해진 방식이다. 한눈에 보이는 여러 기능과 코스를 확인한 뒤 직접 버튼을 눌러 선택 가능해 훨씬 쉽고 직관적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탁기와 건조기
 LG 트롬 워시타워의 혁신적 기술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별도의 유선 장치나 스마트폰 앱의 도움 없이 세탁기가 사용한 세탁 코스에 따라 건조기 역시 최적의 건조 코스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스피드워시 코스'로 세탁하면 '소량 급속 코스'로 건조하는 식. 이를 통해 운동복, 잠옷, 셔츠 등 매일 입는 소량의 옷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단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급한 외출을 앞두고 입을 셔츠가 필요한 경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셔츠 한 벌 코스'는 35분 만에 세탁과 건조를 마치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한다. 세탁이 끝난 후 바로 건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건조 준비 기능' 또한 완벽한 일체형 구조의 원바디 세탁건조기에게 가능하다. 마치 자동차가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이, 세탁이 종료되는 시간을 예상해 건조기의 컴프레서가 미리 가동을 시작하면, 예열 덕분에 건조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세탁기가 빨래를 시작하면 건조기에도 예상 건조 시간이 함께 표시되며, 사용자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탁이 끝나는 시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청결하고 편리한 의류 관리 기능은 그대로 누리다
 LG전자는 이번 제품을 개발하며 세탁기(21kg)와 건조기(16kg) 모두 용량을 채택했다. 인공지능 DD(Direct Drive)를 적용한 세탁기는 의류 무게를 감지해 제질 확인이 가능한 경우 LG전자만의 세탁 방법인 6 모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섬세한 재질의 의류라면 흔들기, 주무르기 등을 통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 한편 건조기는 트루스팀이 가능해 달취와 살균은 물론 주름 완화에 효과적이다. 세 가지 스팀 특화 코스는 젖은 빨래를 건조할 때 외에도 셔츠, 침구, 패딩 의류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립)의 실험을 통해 스팀 살균 코스를 사용하면 유해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을 99.99%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유해한 환경으로 외출 후 바로 의복을 세탁하는 일이 잦아지는 요즘,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탁 후 철저히 살균까지 마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기에 미니멀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겸비했으니 가전으로서 갖춰야 할 장점을 두루 갖춘 듯. LG 트롬 워시타워는 화이트, 블랙 스테인리스, 총 두 가지 컬러로 먼저 만날 수 있으며 가격은 각각 3백99만원, 4백19만원이다. 에디터 **이혜미**

1 (왼쪽부터) 블랙 스테인리스 컬러 LG 트롬 워시타워 4백19만원, 화이트 컬러 LG 트롬 워시타워 3백99만원. 2 LG 트롬 워시타워 중앙에 위치한 조작 패널 원바디 렌드리 컨트롤. 한눈에 세탁기와 건조기의 기능을 확인,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3 LG 트롬 워시타워의 건조 준비 기능을 실행하는 모습. 세탁이 끝나면 바로 건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조기의 컴프레서를 가동해 미리 예열을 마친다. 덕분에 일반 건조기보다 건조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super whitening

고질적인 색소침착부터 전반적으로 칙칙한 피부 톤, 그리고 여드름 자국까지. 화이트닝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미백 관리는 수분과 영양만 충진하면 해결되는 보습 케어와 달리 보다 세심한 관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준을 가지고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신제품을 가장 먼저 접하는 <스타일 조선일보>의 뷰티 에디터가 인기 높은 아홉 가지 제품을 꼼꼼하게 테스트했다. 촉촉함, 탄력 증진 효과, 민감성, 영양 공급, 마무리감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보기 쉽게 별점도 매겼다. 전문가의 오해와 진실 Q&A는 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디코르테 AQ 화이트닝 크림

화이트닝 효과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감을 선사하는 제품. 누룩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물질인 코지신이 티로시나아제의 기능을 멈추게 해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막고, 일지신이 피부 보습 환경을 유지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천연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한 자작나무 수액 성분을 더했다. 무엇보다 세럼과 크림 중간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압권이다. 25g 24만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4 ★★★★★
민감성 2 ★★☆☆☆
영양 공급 4 ★★★★★
마무리감 4 ★★★★★

라프레리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

오메가 3와 6를 함유한 골든 캐비아 추출물을 포함한 세럼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고, 안정화된 비타민 C 오일이 피부를 환하게 고르게 해준다. 또 디글루코실 갈락신이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제어하며, 고유의 인티폴루션 매트릭스 기능이 세컨드 스킨 형태로 수분 손실을 막는 막을 형성하고 활력과 영양, 탄력을 부여한다. 30ml 74만8천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4 ★★★★★
민감성 3 ★★☆☆☆
영양 공급 4 ★★★★★
마무리감 3 ★★☆☆☆

다올 프레스티지 라이트-인-화이트 라크렘 루미에르

피부가 약해지고 민감해질수록 피부 결절 및 색소 형성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에 착안해 스스로의 힘을 끌어올리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장미 추출물과 수딩,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해박함을 함유했다. 딥 글로스 콤플렉스가 늘어선 모공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가꿔주어 피부 탄력을 높이고 건강한 빛이 나도록 해준다. 약간 끈푼하게 느껴지는 크림 타입 텍스처가 매끈하게 빌려 즉각적인 윤택을 부여한다. 50ml 49만원이다.

촉촉함 4 ★★★★★
탄력 효과 4 ★★★★★
민감성 4 ★★★★★
영양 공급 4 ★★★★★
마무리감 4 ★★★★★

코달리 비노퍼펙트 다크스팟 크레팅 모이스처라이저

화이트닝 크림은 건조하다는 편견을 깨는 수분 가득한 크림이다. 포도나무 줄기 수액에서 추출한 비노페린이 주요 성분으로 비타민보다 약 62배 뛰어난 브라이팅 효과를 발휘한다.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이트 직역 뿌리 추출물과 피부 장벽 개선에 효과적인 나이아신아미드를 담았다. 수분을 가득 머금은 살기찬 크림 제형이 부드럽게 발리는데 은은한 펄이 함유되어 자연스러운 윤택을 부여한다. 50ml 5만9천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2 ★★☆☆☆
민감성 4 ★★★★★
영양 공급 3 ★★☆☆☆
마무리감 4 ★★★★★

샤넬 수블리미지 레상스 루미에르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닐라 플레니폴리아 PFA가 피부에 강력한 에너지 공급하며 비닐라 플레니폴리아 워터가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강인한 생리력을 지닌 인텔리스 추출물이 피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특히 청색으로 인한 칙칙한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이다. 글리세린과 사이버터를 함유해 보습에도 우수. 40ml 6만3천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2 ★★☆☆☆
민감성 3 ★★☆☆☆
영양 공급 4 ★★★★★
마무리감 4 ★★★★★

산타 마리아 노벨라 크레마 베르 비앙카 테 레 카르니 SPE20

안정화된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이 피부 톤을 환시키고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올리브 잎 추출물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해주며 일파 비사브롤 성분이 피부 진정과 붉은 기 완화 효과를 발휘한다. SPF 20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추어 외부 유해 환경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다크 스팟 형성을 예방한다. 50ml 19만원.

촉촉함 3 ★★☆☆☆
탄력 효과 1 ★☆☆☆☆
민감성 4 ★★★★★
영양 공급 3 ★★☆☆☆
마무리감 4 ★★★★★



상태피이 블랑 가디니아 브라이팅 에센스
가디니아 줄기 세포 추출물이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며, 동시에 플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해 탄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지질 아미노산과 나이아신아미드가 잠재된 다크 스팟 형성을 예방하고, 피부 속 염증을 완화해주는 수련 추출물도 추가했다. 인공 향, 인공색소, 파라벤을 함유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30ml 27만5천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3 ★★☆☆☆
민감성 4 ★★★★★
영양 공급 3 ★★☆☆☆
마무리감 3 ★★☆☆☆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얼티미트 래디언트 화이트 브라이팅 유스 세럼
탄력 및 영양 공급에 집중한 라-뉴트리브 라인에서 선보이는 브라이팅 세럼으로, 인티에이징과 미백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색소침착 완화에 효과적인 화이트 투베로즈 성분이 피부를 맑게 가꿔주며, 고유의 핵심 기술인 유스-서스테이닝이 피부를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게 개선해준다. 30ml 40만5천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4 ★★★★★
민감성 3 ★★☆☆☆
영양 공급 4 ★★★★★
마무리감 3 ★★☆☆☆

시슬리 후도 블랑 레 광스트레
미로블랑 추출물이 피부에 스며들면 생체 모방 액션을 통해 DKK1의 활성화를 돕고, 나이아신아미드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줄여준다. 롱 펩타이드 추출물, 핵살레조르시놀, 백리향 추출물, 비타민 B, 등 네 가지 활성 성분으로 구성된 콤플렉스가 멜라닌 생성 단계부터 방출되는 4단계에 체계적으로 관련된 다크 스팟을 관리해 멜라닌 생성의 연결 고리를 완벽하게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타민 E 아스테이트 성분이 산화 방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멜라닌 세포의 불균형 유발을 막는다. 건조함 없이 신포타게 마무리되는 촉촉한 에멀션 타입. 20ml 43만원.

촉촉함 4 ★★★★★
탄력 효과 2 ★★☆☆☆
민감성 3 ★★☆☆☆
영양 공급 4 ★★★★★
마무리감 3 ★★☆☆☆

Doctor's Advice 두 피부과 전문의가 전하는 화이트닝 제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advice by 김홍석 원장(외안피부과), 주홍진 원장(도곡양재 치안백피부과)

Q 화이트닝 제품을 고를 때 미백 기능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 C 외에 꼭 눈에 띄어야 할 성분이 있을까요?
A 김홍석 원장(이하 덕터 김) 항산화제, 미백 효능 성분, 자외선 차단제의 궁합은 거의 필수입니다. 특히 피부 미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 차단이며, 그 이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자외선을 항산화제, 미백 제품으로 보완하는 것이 피펙트한 미백 화장품 사용법입니다. **A 주홍진 원장(이하 덕터 주)** 멜라닌을 만드는 데 관련된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막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다크 무 추출물과 알부민, 알파-비사보롤,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와 에틸아스코빌에텔, 아스코빌테트라소팔미테이트는 티로시나아제에 의한 활성을 억제하며,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막아주죠. 비타민 C의 항산

화 작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이아신아미드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멜라노사이트에서 각질 형성 세포로 넘어가는 단계를 억제합니다. 멜라닌이 실제 피부 세포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막는 셈이죠. 이런 성분도 체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Q 미백 제품 특유의 건조함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덕터 김 미백 기능이 있는 순수 비타민 C 제품과 같은 경우 pH가 3.0대로 산성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거나 건조하게 느낄 수 있죠. 세안 시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pH 변화를 최소화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수분감이 좋은 토너를 사용한 다음 흡수된 후 비타민 C 앰플을

사용할 것을 추천해요. 반드시 제품 사용 후 완전히 흡수된 다음 제품을 사용하고, 미백 앰플만으로 건조하다면 허얇은 앰플을 추후 한 번 더 사용하거나 스킨케어 좋은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이트닝 케어 방법이 있다면요?
A 덕터 김 모든 화이트닝 제품이 피부에 자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아신아미드 같은 성분은 오히려 자극을 줄여줄 수 있어요. 보습 화이트닝 제품으로 인식하는 비타민 C 제품도 함량이 낮아 자극이 적죠.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15% 이상 함유한 제품을 추천하는데, 이 경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pH 3.5 인덱스의 순수 비타민 C(아스코르비네이트)를 사용합니

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pH가 높아져 흡수도가 떨어지지만, 민감한 피부라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습제를 바로 사용하거나 보습제에 비타민 제품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하고 난 뒤에 트러블이 없으면 보습제 사용을 줄이면서 단독으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Q 얼마나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A 덕터 김 미백 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멜라닌에 직접 작용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작용하는 것이어서 사용하는 즉시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은 피부가 점차 더 오래되면서 사라지

고, 꾸준한 미백 제품 사용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은 이후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보통 턴 오버 주기를 2주 정도로 보고, 멜라닌 형성을 유발하는 자외선은 1년 내내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Q 화장품과 더불어 높은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술이 있다면?
A 덕터 주 미백 레이저는 흔히 '토닝 레이저'로 불립니다. 토닝 레이저를 쓰는 방식이지 특정한 레이저 기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한국 피부과 전문의들이 최초로 개발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A 덕터 김** 대표적으로는 고주파 피코 레이저 토닝과 피코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을 조합한 프라셀 듀얼 19270만 시술도 있고요. 광채 리프팅이라고 불리는 코티 레이저도 추천합니다. **A 덕터 주** 피부과 미백 치료와 함께 선크림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미백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고, 유지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피부과 치료뿐 아니라 본인의 피부 타입에 적합한 화장품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죠. **예터 이유미**

editor's Pick

건조한 대기와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가꿔줄 이달의 뷰티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크리스찬 루부앵 뷰티 루주 루부앵 샵키 사틴 #001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타에게서 영감을 받은 탄생한 린스틴 컬렉션. 벨벳 매트, 샵키 사틴, 루비 매트 오일, 총 세 가지 타입 중 강렬한 레드 컬러인 샵키 사틴 #001은 버건디 컬러를 살짝 더한 듯한 깊은 레드 컬러로 부드럽게 발리며 오래 지속된다. 고급스러운 블랙 주얼리 박스 디자인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좋을 듯. 3.8g 가격 미정. 문의 080-363-5454. *_by 에디터 장리윤*

비탈사온 모이스트랩 투안원 스타일러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이스트랩™ 기술을 적용해 모발 내 수분 손실을 17%까지 막아주는 제품이다. 스타일링 후에도 헤어이 푸석해지지 않고 에센스를 바른 듯 윤기가 나는 섹션한 이온팅. 소량 유구를 자극하는 은은한 핑크색 디자인과 접이식으로 보편이 편한 디디 후드도 간편하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199천원. 문의 1899-0209. *_by 에디터 이지유*

블리 1803 힐 앙파고 비디 오일 세사미 시드 오일, 샵키 씨 오일, 올리브 오일 등 고대 그리스에서 화장품 또는 안료로 쓰던 식물성 오일을 사용했다. 사후 직후 물기가 남은 깨끗한 피부에 바른 뒤 유자와 민트, 월계수 향이 어우러져 향긋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도 적당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 좋다. 190ml 7만7천원. 문의 1544-5114. *_by 에디터 장리윤*

인생로망 뷰티 따뚜이주 꾸뛰르 벨벳 틴트 #201 루주 따뚜이주 매트 린스틴 제품에도 건조하지 않고 크리미하게 발리는 틴트 사가 없앤다. 우수한 지속력과 밀착력으로 자들 바른 섹션한 컬러감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다. 사틴 틴트 디자인으로 섬세하게 린스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 6ml 4만7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이지유*

조 말론 런던 오렌지 블로섬 홈 캔들 조 말론 런던의 오렌지 블로섬 향을 애정하는 에디터가 두 달 발리 촬영한 제품이다. 홈 캔들과 섹트 싸라운드 디퓨저를 출시해 홈 프라임 문으로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오렌지 블로섬 라인. 그중 캔들은 사무실에 켜놓으면 문 열고 들어설 때마다 상쾌하고 달콤한 봄 향이 풍겨온다. 200g 88천원. 문의 02-3440-2750. *_by 에디터 장리윤*

코스모도르 S/1 아이저젤 페이스 앤 핸드 슝 워드 로즈 마스크 오일 & 비터 오렌지 에센셜 오일 네아프르테에서 전래하는 뷰티 브랜드 코스모도르의 라퀴드 슝.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비터 제품으로 진정, 보습 효과가 뛰어난 글리세린, 로즈 마스크 오일, 비터 오렌지 오일을 담겨 얼굴과 손을 씻은 후에도 촉촉함이 남아 있다. 가뭄이 많이 내지 않아도 새장이 절되는 편. 은은한 허브 향이 7분을 좋게 해준다. 200ml 4만원. 문의 00793644341351. *_by 에디터 이지유*

사슬리 블랙 로즈 아이 크로머 플루이드 큰 입자와 건조한 대기, 부족한 수면 시간까지 더해져 눈가 피부가 급속도로 칙칙해진다. 미친 블랙 로즈의 장점을 통합해 눈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사슬리의 아이 에센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긴 에 플루이드에 글이 들인 볼록하고 차가운 사슬리 린스로 눈가 주변을 마사지하니 핑크 플루이드가 피부에 고루 스며들었다.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14ml 16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이지유*

자형시 르 9 드 자형시 아이세도우 팔레트 #9.01 매트, 세틴, 글리터, 메탈릭 등 네 가지 파니의 총 아홉 가지 컬러 구성이 돋보인다. 몽창 없이 발려 여러 번 덧바르거나 블렌딩하기 쉽고, 수직, 수평, 대각선을 따라 세 가지로 컬러 조합이 가능해 고인 없이 아름다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8g 9만6천원.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이지유*

샵키이 큐어 로즈 워터 꽃으로 피부와 마음에 생기를 주는 아로마를 꽃잎을 적용한 컬렉션. 프랑스 남부 그리스 자형에서 5월 중순 3주 동안 피아는 장미꽃이 큰 새벽에 수직적으로 수확하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아테인 샘물로 증류해 만 들었다. 그런 스토리 때문인지 은은하게 파는 장미 향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듯한 느낌. 아찰자제로 뿌리니 피부가 끈뭇해지고 편안해지는 듯하다. 100ml 10만6천원. 문의 02-517-0902. *_by 에디터 장리윤*

에스티 로더 브론즈 가제스 슈머링 오일 포 헤어 앤 바디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오일을 한 병에 담았다. 스프레이 형식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즉각적인 영양과 활력, 윤기를 공급한다. 보디와 헤어 모두 케어할 수 있지만, 섹션한 보디 케어 제품을 선호하는 에디터에게는 헤어스프레이 용도가 더 적합할 듯. 은은한 향으로 기분 좋은 상쾌함을 선사한다. 50ml 5만8천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지유*

다티지 브로이트닝 업 섹션 밀크 SPF 50+ PA++++ 1년 내내 섹션룩을 버리는 에디터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다티지. 최근까지 다티지 에어리 스킨 업 섹션 사용해왔는데, 여기에 톤 기능을 추가한 섹션이 출시됐다. 파치 톤의 맑힌 베이스가 화상하고 맑은 피부로 감각감이 보충해준다. 남성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다. 50ml 3만2천원. 문의 1811-9415. *_by 에디터 이지유*

데코르테 AQ 모이스처라이징 에센스 프라이머 스킨케어 효과를 특별히 누릴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SPF 25 PA++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는다. 파 라벤을 함유하지 않아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하게 발려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하고 윤관을 부여한다. 30ml 7만6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이지유*

사벨 레 조드 사벨 파라-라비에라 가브리엘 사벨이 라 피우지라는 별칭을 지은 남 프랑스 라비에라 연안 전 세계 아티스트가 모여들던 휴양지. 사벨은 이곳의 따스한 기운을 상쾌한 스킨케어와 플로럴 노트로 해석해 무명한 우리 보틀에 응축해 담았다. 태양 아래 숨한 바람을 즐기며 해변에 누워 있는 아틀라스의 풍경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향수. 125ml 18만9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이지유*



BEAUTY



LG전자 프라렘 초음파 클렌저 블리섬 핑크 초음파와 브러시가 복합적으로 진동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부드럽게 딥 클렌징해주는 초음파 클렌저를 선보인다. 초당 37만 회 초음파 진동과 분당 최대 4천2백 회 브러시 미세 진동으로 모공 사이에 낀 노폐물과 미세 먼지를 자극 없이 세밀하게 제거해준다. 자외선 케어 모드를 추가해 민감하고 약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의 1544-7777

JEWEL&WATCH



반클리프 아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부티크 확장 오픈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하이 주얼리는 물론, 더욱 다채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새롭게 확장한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브랜드 특유의 서정적이고 섬세한 느낌을 반영해 편안한 뉴트럴 톤 가구를 배치한 인테리어로 안락한 분위기를 살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반클리프 아펠 부티크에서는 이번 확장을 기념해 발레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 시루 발레리나 클립을 선보인다. 문의 02-3479-6032

SHOWROOM

일렉신더 맥퀸 컷 아이웨어 컬렉션은 알렉산더 맥퀸 쿠티어 감성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디자인과 정교한 장식으로 시선을 모은다. 모사리가 잘려나간 듯한 오버사이즈 프레임에 와이어 테를 두르고 렌즈 윗부분을 매끄러운 에-루엘 소재로 마무리했다. 다양한 색상의 시각형, 원형 렌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18-6171



조이그라이스 라키 토트백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 중인 김희애 패션이 연일 화제다. 그중 7회에서 착용한 헤더 그레이 색상 라키 토트백은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차분하면서도 톡톡 튀는 컬러로 포인트를 준 김희애의 의상과 어우러져 극 중 역할인 자신만의 자적이면서 우아한 느낌을 연출하는 데 일조했다. 문의 080-202-2002

FASHION



오메가 (HER TIME) 전시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롯데백화점 에버뉴얼 월드타워점에서 (HER TIME) 전시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전시한 제품은 스위스 오메가 무지암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품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한 특별한 타임피스들이다. 이중 일부는 전시 후에도 매장에서 별도 문의 가능하다. 문의 02-3148-9573

블루 컬러 악어 가죽 스트랩과 새틴 스트랩을 함께 제공한다. 문의 02-3446-0088

에르메스 워치 케이프 코드 그레디언트 드 롬 세팅 버전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돛 줄에서 영감을 받은 탄생한 케이프 코드 워치를 PM(23x23mm) 사이즈로 출시한다. 케이스에 세팅된 린트 등과 함께하면 더욱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문의 02-547-9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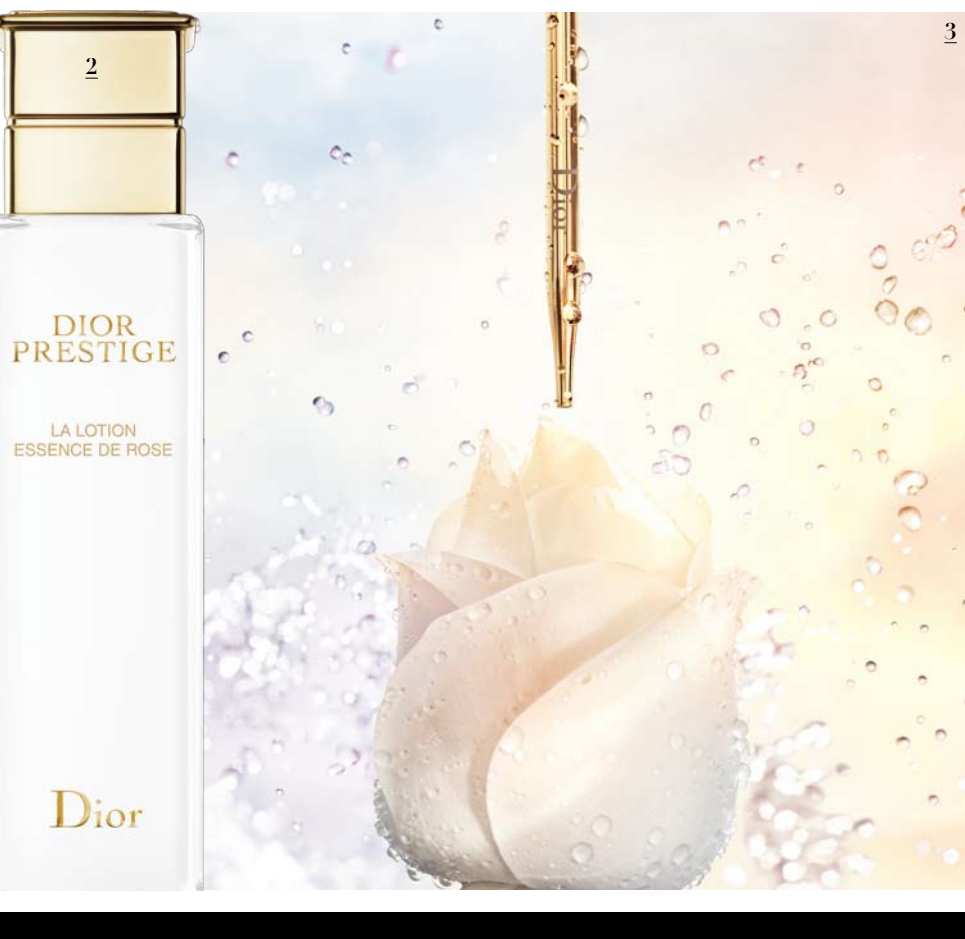


바세론 콘스탄틴 에펠리 문페이즈 다이아몬드 파페 지름 37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2백92개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하고, 다이얼에는 무려 5백1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원에서 구름과 자개 달, 화이트 별을 볼 수 있으며 교체 가능한 나이트

Rose Power

단순 안티에이징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자생력을 끌어올려 젊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선사하는 로즈 드 그랑빌 힘.

디올 뷰티에서 새롭게 선보인 디올 프레스티지 라 로센 에센스 드 로즈의 주요 활성 성분은 로즈 드 그랑빌, 꽃잎의 핵심 성분인 모아 응축한 로즈버드 에센스가 피부 층층이 깊은 보습감과 탄력을 선사하며, 자진 피부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에 집중 작용해 근본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해준다. 은은한 장미 향을 품은 세럼과 오일 중간 제형의 섹션하고 부드러운 프레스 오일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제품을 화장실에 충분히 묻혀 광대 와 이미에 약 5분간 올려두면 보다 풍부한 영양감과 수분감이 피부에 전해져 새로 태어난 듯 맑고 탄탄해진 피부를 느낄 수 있다. 디올 프레스티지 라-미크로 펠 드 로즈를 함께 바르면 더욱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미 추출물이 자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피부 본연의 활력과 에너지를 일깨우며, 미네랄, 미세 원소, 오메가3, 비타민 E 등 20여 가지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성분이 피부 깊숙이 작용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름다운 피부를 완성한다. 데일리 케어 또는 집중 트리트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342-9500



1 디올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우트 대표하는 아이템, 디올 프레스티지 라-미크로 펠 드 로즈. 30ml 29만5천원. 2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보습력을 높이는 세럼, 디올 프레스티지 라 로센 에센스 드 로즈 150ml 14만2천원. 3 로즈 드 그랑빌의 진귀한 성분을 담아 선보이는 디올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라인.

HUBLOT



롯데호텔소공 부티크 02 777 9005
갤러리아 EAST 02 540 1356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점 02 2118 6208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 3213 2239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 051 810 4123
신세계백화점 본점 02 310 533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026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 2639 1963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 661 1808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 745 1346
현대백화점 본점 02 3438 603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 3467 8733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 5170 1168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 245 2221

hublot.com • f • t • i

위블로
빅뱅 유니코

18K 킹 골드 & 세라믹 케이스
유니코 크로노그래프 자사 무브먼트